

전북교육청,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 운영

‘우리는 달라, 달라서 더 빛나’

장애학생 작품전시
장애인식개선 홍보
영상 온라인 공개 등
내달 10일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월 10일까지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달라, 달라서 더 빛나’를 주제로 약 한 달간 본청 1층 공간을 활용해 발달장애 학생 작품 전시 및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1층 현관에는 동안자동차학교 중학교 1학년 김문찬 학생(발달장애)의 작품 15점이 ‘우주에서 날아온 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된다. 김문찬 학생은 2021년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사상대회 은상을 시작으로 각종 그림 공모전과 전시회 출품 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음달 10일까지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전북교육청 본청 1층 공간에 마련된 발달장애 학생 작품 전시장에서 한 시민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작가로, 동물을 특유의 시선과 밝은 색감으로 담아낸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편견없이 바라보면 누구든 각자의 색깔로 반짝이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김문찬 학생 작품에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희 동화작가 이야기가 더해 ‘달달라 모두의 축제’라는

그림책 자료도 개발했다. 이 그림책은 각 학교에 장애공감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할 예정이며, 김문찬 학생과 전은희 작가의 협업 이야기는 오는 28일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장애 공감 홍보영상에는 장애·비장애 학생들과 서거석 교육감이 함

께 출연해 노래 가사의 일부를 수어로 전달한다. 이 영상은 전북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란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ESG 삼행시 짓기’ 우수작 5편 선정

친근한 언어로 ESG가치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ESG 인식 확산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 삼행시 짓기’ 우수작 5편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1회용품 반입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ESG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확산시키기 위해 ‘ESG 삼행시 짓기’도 병행했다. 이는 ESG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실천 의지를 알리고, 친근한 언어로 ESG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모에는 창의적인 작품이 다수 응모됐다. 이중 투표를 통해 총 5편의 우수작을 선정, 인근 협약 카페에서 사용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ESG 인식 확산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 삼행시 짓기’ 우수작 5편을 선정했다.

능한 커피 쿠폰을 상품으로 수여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양한 부서에서 고르게 선정되면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ESG 실천의

즐거움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ESG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초4 구강진료 지원사업 계속 추진

도내 치과 300곳서 진료 가능... 1인당 4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초등학교 4학년 구강건강 진료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맞춤형 구강 진료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인당 4만 원 이내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검사, 치아홈 메우기, 치석 제거, 치아 우식 초기 치료(GI, 레진), 구강보건 교육 등이다.

4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덴타아이 앱을 활용해 협약을 체결한 도내 치과 병(의)원에 전화 예약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치과는 도내 300곳으로, 덴타아이 앱과 각 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영구치가 올라오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1기 신청을”

전북교육청, 초등 4~고교 3학년까지 대상... 오늘부터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2일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talking class)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운영했던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는 총 47기로 구성, 1기수당 9주씩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원어민 강사와 1:3으로 이뤄진다. 1기 운영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사이트(https://www.jhenglish.co.kr/)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6개 직렬 71명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4~18일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행정 25명(일반 21, 장애 3, 저소득 1) △사서 4명 △공업 4명(일반 기계 2, 일반전기 2) △시설 6명(일반 토목 3, 건축 3) △시설관리 16명(일반 14, 보훈부 추천 2) △운전 16명(일반 14, 보훈부 추천 2) 등 총 6개 직렬 7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http://edureuit.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소는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 면접시험은 8월 14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9월 1일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 알림마당) 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제2회 임용시험은 오는 8월 25~29일 원서를 접수한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EIRC, 덴마크

DTU와 해상풍력 기술교류회

국립군산대학교 풍력 지구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이하 EIRC)는 지난 11일 덴마크 공과대학(이하 DTU)과 풍력분야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센터 참여 학생 연구원들의 풍력분야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DTU Wind Energy가 위치한 덴마크 Riso 캠퍼스에서 주요 연구 주제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행사 참여 학생연구원들은 DTU Riso 캠퍼스 내에 설치된 다양한 풍력발전시스템 실험시설 견학 등을 통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대용 국립군산대 EIRC 센터장은 “이번 DTU와의 기술교류 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연구원들이 풍력분야 선진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대학교 등 5개 대학은 최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다양한 갈등 극복을 위한 포용사회 구축’을 목표로 2025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대 종교 기본이념 바탕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전주대, 가톨릭대·동의대 등 4개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사회 갈등 극복 ‘포용사회’ 구축 위한 교류·협력 강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가톨릭대학교, 동의대학교, 우송대학교, 동국대학교 4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갈등들을 극복하는 ‘포용사회’ 구축을 위해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5개 대학은 최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다양한 갈등 극복을 위한 포용사회 구축을 목표로 2025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컨소시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대학 컨소시엄은 3대 종교(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대학 간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공유·협력을 포함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약속했다. 전주대 한동승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대학의 건학이념 실현과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갈등들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5개 대학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포용성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서 인문학적 소양 키워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 ‘로컬링’ 2회차 프로그램 성료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은 지난 10일 ‘로컬링(Local-ing)’ 2회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로컬링(Local-ing)’이란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에 총 4회 진행 된다. 1회차는 지난 3월 20일 한옥마을 방문을 했으며, 이번 2회차에는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아 인문학적 소양을 키웠다. 국립전주박물관 방문을 통해 인문콘텐츠대학 학생들은 전북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 유적과 미술 공예품 등 조선왕조와 관련된 유물 전시를 관람하며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가치를 경험했다. 또한, 학예사의 설명을 통해 전북 지역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의 역사적 배경과 발굴 과정,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설명을 들으며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었다. /장은성 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며 “한옥마을에서는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박물관에서는 유물을 직접 보며 역사적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로컬링(Local-ing)’ 탐방 프로그램은 군산근현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전북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장은성 기자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학 혁신

전주대, 서포터즈 ‘JUNI:ON’ 1기 발대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일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1기 JUNI:ON(주니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JUNI:ON은 영화방송학과, 역사콘텐츠학과, 웹툰만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 10명으로 구성, 콘텐츠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중심형 ‘Together 프로그램’, 자율전공 학생을 위한 ‘Major Fair’, RC 멘토링 등과 같은 핵심 사업들을 소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대학교는 2023년과 2024년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으며, 2024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도 S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혁신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JUNI:ON은 블로그 및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주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혁신 사례와 성과를 교내·외에 물론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권순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서포터즈 활동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에 되길 바란다”며 “첫 기수로서 막중한 책임이 따르지만, 전주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솔내고 학교운영위 학생 참석

전주 솔내고등학교는 지난 10일 열린 제119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 학생회 2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자치와 교육정책 참여 확대 실현을 위해 학교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추진했다. 운영위원장은 “제안 설명자와 운영위원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해 평소보다 안전을 더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히 숙지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조호진 학생회장은 “민주적 절차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수련 활동 등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일으키는 심의 안건들은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병민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욱 뜻깊었다”며 “학생·교직원·학교운영위원의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가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